

폭염에 폐사 가축 218만 마리 육박

사과 11ha 햇볕데임 피해 첫 접수...178개 농가 11.1억만 지급 농식품부 "폭염피해 더 늘수도"...간부들, 피해현장 잇따라 방문

기록적인 폭염에 폐사한 가축 수가 218만 마리에 육박했다. 피해액은 119억원으로 불어났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13개 시·도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총 21만7237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여름 이맘때의 180만8514마리보다 20.4%(36만8723마리) 늘어난 숫자다. 지난 17일 정부의 공식 발표 당시 79만2777마리였는데 8일 만에 138만여 마리가 더 폐사한 것이다.

그러나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의 피해 신고만 집계된 데다 폭염이 8월까지 장기화할 것이라 예보가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축종별로는 닭이 204만2438마리로 가장 많이 폐사했다. 오리 10만 4888마리, 메추리 2만1500마리, 돼지 9430마리, 소 1000마리도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전북 무주에서는 농작물 피해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사과 과수농가 1곳 11ha(헥타르·1ha=1만㎡)에서 햇볕 데임 증상이 발생한 것이다. 햇볕 데임은 높은 온도와 강한 빛으로 과일이나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보험금 기준)는 119억1200만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17일 42억원에서 8일 만에 2배 커졌다.

이날 기준 1435개 폐해 농가 중 178개에만 11억1800만원이 지급됐다.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가입률은 돼지 97.9%, 닭 97.6%, 오리 85.5%, 메추리 59.9%, 소 11.1%다.

보험 미가입 농가도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따라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30%를 넘으면 영농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도 지급한다.

희망농가에 한해 피해 면적 경영비의 최대 2배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이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작업 도중 폭염으로 온열 질환을 얻은 농업인에게 치료·요원비를 지원한다.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는데다 고령자가 많아 폭염

에 취약한 편이다.

최근 7년(2011~2017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113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논·밭(190명, 16.8%)과 비닐하우스(19명, 1.7%)에서의 발생 비중이 높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월 상순까지 폭염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예보가 있어 가축과 농작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현수 차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간부들은 이날 폭염 피해 현장을 찾

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폐사 피해를 입은 충북 음성읍의 육계(식용닭)농장을 김 중훈 차관보는 햇볕 데임 피해를 입은 전북 무주 사과농가를,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고령지 체소 재배 주산지인 강원 정선·태백을 각각 방문했다.

뉴스시



더울땀 그늘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린 25일 오후 세종시 전통문 베아트리카크의 빈달가슴곰들이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

'1년 가까이 공백' 전남테크노파크원장 공모 '미적'

TP, 정부 업무와 연관성 많아...전남개발공사 등과 성격 달라

민선 7기 김영록 전남도지사 취임이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1년 가까이 공석인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공모 절차가 미적미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하차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전남개발공사, 전남테크노파크, 여성플라자 등 도 산하기관 수장이 수개월째 공석이다.

그나마 정무부지사와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공모에 들어갔으나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여성플라자 원장 등은 아직 공모 공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도기획실장이, 여성플라자 원장은 전남도 여성정책과장이,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단정급이 각각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문제는 전남개발공사나 여성플라자와 달리 정부와 연동돼 경제·산업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의 공백이 1년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임 원장이 지난해 8월 비리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연가와 병가 등을 잇달아 낸 뒤 지난 3월 해임돼 1년 가까이 직무대행체제가 이어져오고 있다.

당시 원장 공석 장기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전남테크노파크가 새 정부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을 빠뜨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고, 지방선거와 관

계없이 조기에 원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남도에서는 김 지사가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원장 공모 공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원장 선임이 9월까지 이뤄질지 미지수다.

전남도가 정부 관련 업무가 많은 테크노파크를 도 산하단체인 전남개발공사나 여성플라자와 동등하게 취급 너무 인위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테크노파크 원장 선임에 대해 후보추천위원회 선임을 하고 있다"면서 "8월 초에 공모 공고가 날 것이다"고 말했다. 여성플라자는 현재 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다.

김정환 기자

BBC "라오스 댐 붕괴 사망자 최소 20명"

SK건설이 참여한 라오스의 세피안 새남노이 수력발전 댐 붕괴로 수백 명의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통론 시술릿 총리가 월례 각료회의를 취소하고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25일 현지 뉴스통신사인 KPI과 라오선타임스 등은 통론 시술릿 총리가 전날 각료들을 대동하고 현장을 방문해 구조상황 및 이재민 지원 등을 살펴봤다고 보도했다. 라오스 정부는 피해지를 긴급재해지역을 선포했으며, 이타프 주 정부는 중앙정부는 물론 군과 경찰, 기업계 등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라오스 소셜미디어(SNS)에는 집을 잃고 이재민 신세가 된 약 6600명의 주민들이 학교 등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는 사진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라오선 타임스는 댐 주변에 마이, 타인 등의 마을 주민들이 현재 이타프 주정부 관련 시설 및 학교 및 야외 천막 등에서 대피하고 있다면서, SNS에 올라온 사진들은 보편 의약품 등의 지원이 매우 시급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BBC는 이번 댐 붕괴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최소 20명, 실종자는 10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또 댐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이 지난 22일 댐의 문제를 발견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날 대피했다고 전했다. 이후 댐은 다음날인 23일 오후 8시쯤 붕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코야키 가게 13억원 탈세 혐의 고발

일본 오사카(大阪)에 위치한 한 다코야키 가게가 1억 3000만엔(약 1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소득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고 NHK가 24일 보도했다.

다코야키는 밀가루 반죽에 다코(문어) 등을 넣어 동그랗게 구워낸 오사카 지방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한 접시에 6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일본인들의 간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지역의 관광명소인 오사카(大阪)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 한쪽에 위치한 다코야키 매장 주인(72)은 지난 3년간 다코야키 등을 판매해 얻은 소득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2014~2016년 3년간 다코야키 등을 판매해 약 5억엔 이상을 벌였으나 세관에 소득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몇년 새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다코야키가 폭발적으로 팔려나가 해당 매장이 엄청난 소득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오사카 국제국은 해당 매장 주인이 약 3억 3000만엔의 소득을 은닉하고, 1억 3000만엔을 탈세했다며 소득세법 위반 혐의로 점주를 오사카 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NHK는 다코야키 가게가 13억엔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배경에는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것이 이유라고 지적했다.

오사카 관광지에서는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비운드 소비(방일 외국인인 일본에서 하는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오사카의 식문화화를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다코야키가 관광객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오사카 중심지인 도톤보리(道頓堀)에는 다코야키를 맛보기 위해 매장 앞에 긴 줄을 늘려선 관광객들을 흔히 볼 수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美 데스벨리, 52.7도로 최고기온 갱신

미 남서부에 기록적인 폭염이 덮친 가운데 미 국립기상국은 24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 데스 벨리의 기온이 52.7도(화씨 127도)를 기록해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밝혔다.

국립기상국의 크리스 아우틀러 기상예보관은 이는 102년 전인 1916년 7월 24일 기록된 52.2도(화씨 126도)보다 0.5도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기상국은 또 이날 캘리포니아주 코첼라 밸리와 팜스프링스도 각각 50도(화씨 122도)와 49.4도(화씨 121도)로 종전 최고 기온 기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기상예보관 앤드루 디머는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기온이 46.6도(화씨 116도)로 2014년의 종전 최고 기온과 타이틀 이루었다고 전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새벽 최저기온이 31.6도(화씨 89도)를 기록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전력 당국은 순환적 전력 공급 제한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에어컨 사용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